

배포일시	2021. 11. 22.(월) 16:00 (총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홍기만 사무관 고혜영
		전화번호	051-718-0432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시, 부산연구원, APEC 기후센터와 함께 『2021년 부산 기후변화 포럼』 열어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실현 방안 논의 -

-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정현숙)은 부산시, 부산연구원, APEC 기후센터(이하, 부산기후변화협의체)와 공동으로 11월 22일(월) 벅스코에서 기후변화 관련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계, 언론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부산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은 부산의 기후변화 과학과 정책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IPCC 보고서의 과학적 의미와 부산의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략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본 행사에서는 ‘기후위기와 IPCC보고서의 과학적 의미’에 대해 APEC 기후센터 권원태 원장의 기조연설과, ‘그린인프라 공간분석을 통한 부산시 기후변화 적응성 강화 방안’(부산연구원 여운상 연구위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부산카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 ‘기후변화 취약성과 적응대책수립 현황’(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정휘철 연구위원) 등 3건의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 이어, ‘부산시의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시청, 부산연구원 등 공동 주관기관과 부경대학교, 부산항만공사,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학계·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여 부산의 공공정책 및 기후, 환경, 에너지, 해양 등 분야별 탄소중립 실현 전략 및 공동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기후변화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민관학연 네트워크가 탄소중립 실현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